

# 해외출장복명서

기 간: 2017.7.31.~8.5(5박 6일)

출장지: 중국 우루무치, 둔황

출장자: 이현주

##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간쑤성 둔황
2. 출장기간: 2017.7.31.~8.5(5박 6일)
3. 출 장 자: 총 10명

구분	이름	직급	소속
원내	이현주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조철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김동수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원외	조은교	부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서종원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이문형	교수	승실대학교
	구기보	교수	승실대학교
	홍기석	교수	승실대학교
	정도숙	전문연구위원	코트라
	김윤희	차장	코트라

### 4. 출장목적

- 본원에서 수행중인 수탁과제 “중국 서북부지역 도시군 발전전망과 시사점” 연구 수행을 위한 중국 측 전문가와의 정책협의회 참석 및 현지조사 실시
- 본 출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 협동과제(주관: 산업연구원)의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산업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위탁용역 기관의 연구진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출장으로 중국의 연구 대상지역을 현지 조사하고 중국 전문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산업 및 지역정책 방향과 관련 시책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올해에는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국토연구원, 승실대, 한국교통연구원, 코트라) 연구진 10인이 동행하였음

## II. 출장일정

날짜	시간	세부일정	비고
7.31(월)	오전, 오후	- 이동(인천 → 베이징 → 우루무치)	KE855, CA1291
8.1(화)	11:00-12:00	- 중국현지정책협의회(신장대학교 쑨후이 교수)	
	14:00-15:00	- 신장사회과학원(외사처장 리우루메이)	
	18:30-20:30	- 우루무치 한인간담회(현지 한인회 현이삭 사무국장 등 참석)	
8.2(수)	08:00-13:30	- 이동(우루무치→이리, 이리→호르고스)	CZ6829,버스
	11:00-13:30	- 호르고스 서중물류 지점 방문 및 면담(히지양 총경리 외)	
	14:00-17:00	- 호르고스 자유무역구(FTZ) 현지 시찰	
	17:00-23:00	- 이동(이리→우루무치)	CZ6828,버스
8.3(목)	09:00-17:30	- 이동(우루무치→유원남역→둔황)	고속철도,버스
8.4(금)	11:00-12:00	- 간쑤성 서북사범대학교 분교 방문	
	14:00-16:00	- 간쑤성 서점 방문 및 자료 구입	
	17:00-19:00	-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8.5(토)	오전, 오후	- 이동(간쑤성 둔황→베이징→인천)	

## III. 수행사항

### 1. 신장 우루무치 정책협의회

□ 일시: 2016.8.1.(화) 11:00~12:00

□ 회의방식: 대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부득이 자료제공을 통한 서면협의로 진행

※ 정책협의회에 관한 중국측과 사전협의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중국측의 일방적 불참으로 대면회의 무산(사드영향으로 예측)

□ 주요내용

○ 신장은 석유, 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이 풍부, 對중앙아시아 변경무역 거점이자 중국의 중앙아시아 유럽행 화물열차가 지나는 핵심 통로임

- 신장에 중국 석유의 22%가 매장되어 있으며, 석탄, 철광석, 동, 금, 니켈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여 화학, 철강, 전력 산업 등이 발전
-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우루무치, 휘얼귀스, 아라산커우 등을 중심으로 변경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중국에게 있어서 신장은 중앙아시아를 통한 원유 및 가스 공급로로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서북채널을 통한 중앙아시아로부터 석유가스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중국의 서기동수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지역임)
- 대외교역액 중 카자흐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가장 높으며, 키르기스스탄은 22.6%를 차지 (2017.7월 기준)

○ 신장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우루무치, 아라산커우, 휘얼귀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중·카자흐스탄 국제변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무역 자유화, 비자 및 화물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협력사업 추진

○ 중국의 정책적 지원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카자흐스탄 등 연선국가의 시장규모, 인프라 등 여건이 취약한 상황이며 대외적으로 중국측이 공개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대외개방 추진 방향과는 달리 실제 현지 실정은 잦은 소지품 검사 실시로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가 팽배함

- 신장 지역의 불안전하고 경직된 사회분위기는 현지 진출을 피하고 있는 우리기업에게는 불리한 대내적 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신장을 통한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가능성은 있으나, 중앙아시아가 어느 정도 배후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2. 신장사회과학원 방문

- 일시: 2016. 8. 1(화) 14:00~15:00
- 회의방식: 대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부득이 자료제공을 통한 서면협의로 진행
- 주요 내용
  - 신장사회과학원은 국무원 직속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의 지방분원으로 정치, 철학, 경제, 자치구 민족문화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전략 시행 이후 주로 일대일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임
  - 외사처장 리우루메이(刘芦梅)와 추후 방문일정 신청 및 관련 협의

## 3. 우루무치 한인간담회

- 일시: 2016. 8. 1(화) 18:00~20:30
- 참석자: 한인회 참석자 (5명): 한국성(무역회사) 최상영 사장, 은택무역 엄준호 사장, 한국미용실 현철욱, 김미옥 사장님, 현이삭 사무국장, 출장자 전체
- 주요내용

- 한국기업 진출과 관련해 대기업 진출은 없는 상태이며, 10개 이하의 중소기업이 진출 중에 있음
  - 물류여건 및 신장자치구 치안 등의 문제로 업체진출에 어려움
  - 한국인의 많은 부분은 선교활동 목적이 많으며, 중국정부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비자발급상의 문제가 있음
- 기본적으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생필품의 인지도가 높음
  - 현지에 우리나라 대상그룹(청정원) 식품판매상이 사업을 하고 있음
- 사드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인 비자 연장에도 어려움이 존재
  - 사드 이전에는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 화장품, 미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나, 사드 이후 급격하고 수요가 감소
  - 체류비자도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 귀국해서 여행비자로 다시 돌아와 일하고 있는 한인들이 다수
  - 무조건 4년제 대학 학위가 있어야, 중국에서 취업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장기체류가 어려운 상황임

## 4. 서중물류 호르고스 지점 간담회

- 장소 : 호르고스 서중물류 지점 회의실
- 일시 : 2017. 8. 2(수) 11:00 ~ 13:00
- 참석자: 호르고스 서중물류 총경리 허지양 외 현지직원, 한국 출장 대표단
- 주요내용
  - 호르고스 자유무역구 구축경위 및 현황(참여업체, 규모 등)
  - 우리나라 상품 수출입 규모 및 전망
  - 서중물류 물류영업 현황 및 전망
  - 중국 일대일로에서의 호르고스 자유무역구의 위상 및 중국 중앙정부 개발

의지

○ 호르고스 자유무역구 관련 법·제도 현황



5. 호르고스(휘얼귀스) 자유무역구 현지시찰

- 장소 : 호르고스 자유무역구
- 일시 : 2017. 8. 2.(수) 14:00 ~ 17:00
- 참석자: 호르고스 서중물류 총경리 허지앙 및 한국 출장 대표단 전원
- 주요내용
  - 호르고스 자유무역구는 2012년 4월 14일에 개장되었으며 중국 신장과 카자흐스탄간 국경무역 및 경제교류의 중심지임. 호르고스 자유무역구는 전체 면적 528ha 중 카자흐스탄측 185ha, 중국측 343ha, 산업시설, 인프라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호르고스 자유무역구 설립의 주요 목적은 비즈니스 및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역지원, 판매장, 창고 및 수송서비스, 호텔 및 식당 등 편의서비스 제공에 있음<sup>1)</sup>

1) 김상철, 2017. 중국-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 자유경제지대 개발과 한국에 주는 함의. p. 17.

○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6대 경제회랑 중에서 신유라시아대륙교 및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에 호르고스가 위치해 있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호르고스 자유무역구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협력에 의해 건설된 철도 물류 환적기지인 호르고스 동부게이트는 중국과 서유럽간 물류연결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6. 서북사범대학교 방문

□ 장소 : 간쑤성 서북사범대학교 분교

□ 일시 : 2017. 8. 4.(금) 11:00 ~ 12:00

□ 주요내용:

- 대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중국측의 사정에 의해 미 추진
- 간쑤성 둔황에 위치한 서북사범대학교 분교에 방문, 다른 대학에는 없는 관광경영학원 설립되어 있음
- 실크로드의 관문이자 동서교역의 거점이었던 둔황은 관광산업이 주요산업으로 관광경영학과라는 특수 전공학원이 존재
  - 간쑤성의 주요 산업 구성비를 보면, 부가가치액 기준 1차산업은 8.2%, 2차산업은 39.3%, 3차 산업은 53.2%로 주로 관광, 문화사업 등의 3차 서비스 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2015년 기준)

<2017년 상반기 간쑤성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 현황>

	금액(억 위안)	증가율(전년대비,%)	비중(%)
전체 RGDP	2993.02	5.0	100
1차산업 부가가치액	244.95	4.8	8.2
2차산업 부가가치액	1177.25	1.9	39.3
3차산업 부가가치액	1590.82	7.5	53.2

자료: 간쑤성 통계국.

## 7. 협동기관간 워크숍

□ 장소 : 둔황

□ 일시 : 2017. 8.4(금) 17:00-20:00

□ 참석자: 출장자 전원

□ 주요내용

○ 기관별로 출장기간 모니터링 및 과제 중간 상황 점검

○ 산업연구원

- 신장을 통한 중앙아시아 진출 가능성은 있으나, 중앙아시아의 수요가 얼마나 될지 다소 우려됨
- 다만, 자원이 풍부하므로 석유, 석유화학, 기초플라스틱 제조산업 등을 기반으로 발전 가능성 있음
- 또한, 한류를 바탕으로 신장을 활용한 중앙아시아로의 소비재 진출을 고민해 볼 필요
- AIIB 기금 등을 활용하여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
- 또한, 최종소비재 보다는 부품소재로 진출하는 것이 더 전망이 있어 보이며, 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팔로업하여 우리의 진출 방안 분석 필요

○ 숭실대학교

- 의약·신에너지·자원개발 분야에서 정부차원의 협력방안 찾아야 할 필요
- 현재 내몽고 대당집단과 한전이 합자해 구축한 풍력발전소 등을 벤치마킹하여 스마트그리드 등 신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방안 도출 필요
- 현지 중국 전문가들 문헌을 보면, 분석보다는 데이터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직 이 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재함
- 이에, 선부른 진출방안 도출은 시기상조 일수도 있으며, 서북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
- 또한, 지리적 특성상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한국성 쇼핑몰, 물류센터 구축 등을 고려

○ 코트라

-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전략방안 도출 필요하나, 물류비용이 많아 중소기업

은 진출을 포기하는 추세

- 기존 중국내 한국제품 물류센터 등의 성공사례가 많지 않음. 기존의 경험과 중국기업들의 전략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 있음
- 호르고스 FTZ에서 한국제품 면세라고 하지만 오히려 너무 가격이 높았으며 수요가 있다고 하나, 얼마나 이익이 있을지는 의문
- 우리나라에서 바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것보다 FTZ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얼마나 이익이 될지 계산 필요

○ 교통연구원

- 서북부지역은 성별 GDP가 낮으며, 시장도 작아 산업적 측면에서 제조업 진출은 어려움이 존재
- 신장은 일대일로 경유지에 불과하며, 아직 거점지역이라 보기엔 무리이며, 물류측면에서 변경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

○ 국토연구원

- 간쑤지역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 중에 있으며 자원 여건상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한전은 지난 2004년 중국 발전기업인 다탕사와의 협력 하에 네이멍구, 간쑤, 랴오닝성 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과제 중간진행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은 주로 중국 서북지역의 도시군을 중심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주요 대상 도시군은 네이멍구의 후바오어 도시군, 간쑤성의 중부도시군(란바이도시권), 신장의 톈산베이포 도시군이며 해당지역의 신형도시화계획, 13.5규획 등에서 제시된 도시화 발전 계획과 발전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IV. 출장효과

### 1. 중국 서북부지역의 일대일로 추진현황 점검

- 신장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은 우루무치, 아라산커우, 휘얼귀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
  - 중국의 일대일로 실행계획<sup>2)</sup>에 따르면, 신장지역을 서쪽개방의 주요 창구로서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의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본 계획에서는 중국 서북지역의 경우 신장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등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핵심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특히, 휘얼귀스 경제특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접경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특구로, 국제변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무역 자유화, 비자 및 화물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협력사업 추진 중임

2) 중국 NDRC.외교부.상무부. 2015. <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

- 경제특구 내에 중국의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고, 향후 물류 인프라를 확대하여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추진
  - 특구 내에는 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시설 외에도 비즈니스 센터, 호텔, 물류창고, 전시회장 등의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출 예정
  - 특구 내 법인세, 기업소득세 등 각종 세금 면제혜택 등이 있어 기업들 진출이 잇따르고 있음
- 간쑤성은 일대일로 전략의 주요 경유지이나 통과지 역할로 일대일로의 혜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란조우 경제신구가 가동 중이나 섬서성의 시안과 비교해 경쟁력이 높지 않으며 산업거점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으로 보임

## 2. 일대일로를 활용한 서북부지역 진출전략

- 일대일로 연선국 인프라 건설 및 개발에서 양국의 공생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구상
- AIIB 기금 등을 활용한 진출방안 모색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한국성, 한국제품 전문 물류센터 구축 필요
  - 대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신장 활용방안 검토 추진